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중기부, 실적 증빙 통해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만원 지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을 2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한시 지원하는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17일 배달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하였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로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참고로,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협·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증빙자료 인정범위 및 건당 인정금액을 정하였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호흡기 질병엔 백신 접종이 효과적

저지종 송아지, 생후 14~20주령 2차례 접종

농촌진흥청은 저지종 송아지의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해 맞춤형 백신 접종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저지종(Jersey)은 갈색 계열 털색을 보이는 젖소 품종이다. 우유의 단백질·지방·고형분 함량이 높아 유제품 가공에 적합하고, 고온 환경에 강해 기후변화 대응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저지종 송아지가 포유기(8주령 이내)와 이유기(8주령~6개월령)에 호흡기 질병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 등 혼합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약독화 백신을 이용해 접종 시기별 항체 형성 효과를 분석했다.

약독화 백신은 병원성 바이러스나 세균을 실험실에서 반복 배양하거나 특수 공정을 통해 독성을 낮춘 백신으로, 체내에서 항체 생성을 유도한다.

연구 결과, 14주령에서 20주령 사이에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송아지 25두 중 92%가 24주령 시점에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초유를 통해 전달된 모체이행항체가 감소하는 시점에 백신을 접종한 개체는 52주령까지도 항체 양성률 100%를 유지해 면역 지속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Veterinary Immunology and Immunopathology'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개정 예정인 '저지종 사양관리 기술서'에도 반영돼 전국 낙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 당진낙농축협 등과 협력해 저지종 사육 기반을 확대하고, 사양관리 지침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맞춤형 접종 시기를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확대해 농가의 질병 대응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상범 과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저지종 송아지의 호흡기 질병 저감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해서 저지종 사육 기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협 익산시지부, 영농철 풍년농사 기원 일손돕기 실시

NH농협 익산시지부는 영농철을 맞아 풍년을 기원하는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는 북익산농협과 농협사료, 농협생명 전북총국 임직원들과 함께 대추나무 가지치기 등 영농작업을 함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진현욱 지부장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고 농협은 농업인 실익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득추 북익산농협 조합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 농촌의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손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 익산시지부는 지난 17일 용동면을 시작으로 관내 영농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일손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中企 미국 진출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보험 지원부터 법률 자문까지… 현지 진출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LA에 소재한 한미은행 본점에서 한미은행, 허브천하, LBBS(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 로펌과 함께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바니 리 한미은행장 △박기홍 허브천하 대표 △스콧 리 LBBS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미은행은 '82년 설립된 미국 최초이자 2번째로 큰 한국계 은행으로 미국 내 9개 주에서 35개 지점 운영중, '24년 말 기준 자산규모 7.6억달러(11조원), 순익 6.2천만달러(9백억원)이다.

허브천하는 '90년 설립된 미주지역 한인 보험 에이전시로 '16년 한인보험업계 최초로 연매출 1억 달러 돌파, 세계 5위 보험 브로커 기업인 허브인터네셔널('22년 연매출 37억 달러)과 합병 운영중이다.

LBBS은 '79년 미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종합법률회사로, 미 전역에 걸쳐 55개 사무소와 1,500명 규모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美로펌 중 매출 기준 71위, 변호사 수 기준 15위 규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금융 및 보험지원 △인사관리 및 법률지원 △현지 기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오는 9월에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투자유치 포럼(가칭)'을 개최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소상공인 육아안정 지원 2억원 특별출연

전북은행, 저출생 위기대응·사회공헌 위한 금융지원 확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도내 소상공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저금리 금융지원을 위한 2억원을 특별출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혼부부 및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와 궁극적으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소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 사업자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대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난임 진단을 받거나 난임 치료를 받은 경우(치료중 포함), 자녀가 12세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특별출연을 결정했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및 전북은행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스마트 퇴근 알림톡 구축… 복무 관리 효율성 증대

전북개발공사가 직원들의 복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스마트 퇴근 알림톡'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퇴근 등록이 되지 않은 유연근무자에게 자동으로 SMS 메시지를 발송하여 복무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퇴근 미등록을 예방함으로써 유연근무제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 감사가 강화되고 유연근무제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정확한 복무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퇴근 미등록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동화된 복무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퇴근 예정 시각으로부터 5분이 경과한 시점에 퇴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연근무자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게 퇴근 등록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복무 예외 사유가 있는 직원은 제외하여 정확성을 기한다.

이번 시스템은 예산 소요 없이 내부 역량을 활용해 자체 개발되었으며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